



1.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과..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아버지의 뜻을 세워 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만나게되는 이땅의 다음세대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심으신 예비된 아버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담아주시고 예비된 그들을 통해 일 하실 것이며 먼 훗날 때가되면 아버지의 선명한 계획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사람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어느 한사람도 귀하지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공부방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것들이 심히 미약해 보이지만 교사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소중한 꿈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응원하게 만들고 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시카고 사랑의교회를 통해 몇 몇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이 전달 되었으나 장기간 이어지고있는 Covid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고 변동되는 매우 난처한 일들이 많았으나, 현재 방학기간(6월~8월)을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Covid 가 조금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새 학기에 맞춰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게될 아이들을 새롭게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디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 안정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발이 잘 기경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바랍니다.



2. 지속적인 지원과 관계를 위한 접촉점 만들기..

지역을 돌아보고 살피며 도울 수 있는 영역과 범위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일들은 생각처럼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 지원을 해주기엔 너무 여력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무언가를 요청하여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들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격려야하는 과정 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일과 사건이 없어도 그들을 만나 작은 신뢰의 한 조각 만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다양한 접촉 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머니돈을 모아 과일을 사고 물품을 사고 그렇게 상대를 알아 가고자하는 심방을 떠납니다. 초대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찾아가고 그냥 그렇게 작은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결과도.. 없는것 같으나 어느순간 그냥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어느순간 그냥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3. 새로운 출발을 위한 리모델링..

낮선 지역에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가는 일은 많이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멋지고 화려한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시작은 이땅에 함께있는 몇몇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정성이 모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채워지지않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은혜로운 기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꾸며진 공간은 올 해 9월 새 학기를 시작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교사 섭외, 책상, 의자, 모니터, 프린터기, 학습교재 등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작은 일들로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는 큰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온전케하실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 지금.. 아주 잠시만이라도.. 마음을 더해주세요

@ 지역에 잘 정착하여 신뢰할만한 관계를 쌓고 그 속에서 좋은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지역과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 개인의 경건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 새로운 공부방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되어 올 해 9월 새 학기에 잘 오픈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사업장 허가' 및 '운영 허가'를 받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여러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기위해 필요한 성실한 직원 및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 공부방을 통해 지역 및 아이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도록

@ 지역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들이 풍성히 채워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 많이 지치고 힘겨워진 육체의 연약함과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 현재 이 땅의 심각한 국가부도사태의 위기 속에서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힘을내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그들의 삶들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결국 오직 믿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